

# 신채호의 만주인식과 그 변모\*

표 언 복\*\*

1. 글을 시작하며
2. 지리의 발견과 영토의식의 자각
3. 호명된 영웅 재생된 기억
4. 현실의 만주, 거울 앞에 선 자아
5. 꿈과 욕망의 재현
6. 맺는 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단재 신채호가 여러 가지 형식의 글쓰기를 통해 만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이 어떤 변모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대체로 세 가지 형식과 단계로 구분된다. 만청기 양계초의 영향을 받아 역사·전기류 소설 창작에 적극성을 보인 1907-8년 무렵의 첫 번째 단계, 『대한매일신보』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사적 논설 집필에 주력하던 1910년 망명 전까지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망명 이후 「꿈하늘」 「용과 용의 대격전」 등의 환상적 소설이 중심을 이루는 세 번째 단계가 그것이다.

신채호에게 있어서 만주는 ‘잃어버린 우리의 옛 영토’였다. 그렇기 때

---

\* 본 논문은 2010년 8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중국조선민족문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기억 속의 만주와 욕망의 재현」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문에 만주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영토라고 믿었다. 이같은 생각은 단재의 전 생애를 통해 일관되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각기 다른 여러 형식의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의 글쓰기 방식의 변화는 창작 및 집필 환경이나 그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때마다 만주 인식의 태도나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전기류소설에서는 만주가 과거 우리의 영토였다는 기억을 되살려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거꾸로 우리가 만주라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해 온 주체였다는 기억의 재생이기도 하다. 이같은 글쓰기는 열강의 경쟁적인 침탈 앞에 속수무책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민족의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다. 두 번째 글쓰기 단계인 논설들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현실적 감각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강대국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 있는 만주는 조선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도 정작 그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단재의 비감한 정서가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다. 만주에 대한 고토의식은 여전하지만 ‘갈력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이고 있는 점에서 현실성이 돋보인다. 망명 이후의 두드러진 글쓰기 방식인 환상소설의 단계에서는 다분히 낭만적인 역사·전기류 소설형식의 만주 인식방법이나 현실적인 시사적 논설류의 만주 인식방법의 한계가 한결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주의 주체로 행세하던 역사적 기억을 재생해 내고 있는 점에서 는 비슷하지만, 고토 회복의지가 한결 강화되고 그 현실적 실현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렇듯 강경한 작가의식을 환상적 서사구조 속에 형상해 냄으로써 현실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한계라 할 것이다. 단재의 글쓰기 형식의 변화와 만주 인식방법의 변모는 대체로 갈수록 악화해 간 글쓰기 환경의 변화와 일치한다.

**주제어** : 신채호, 만주, 영토, 역사·전기류소설, 논설, 환상소설, 「꿈하늘」

## 1. 글을 시작하며

문학의 진보란 그것을 이루는 갖가지 요소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는 역설적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진보를 강제한 측면도 없지 않다. 유이민 문학의 경우에서 보듯, 제재의 다양성이 두드러진 예에 속하지만 배경의 공간적 확대라는 측면도 그에 못지 않다. ‘만주’는 일제시대 한국 근대문학에서 국내의 본토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가히 ‘열풍’이라 해도 좋을 만큼 연구자들이 만주의 문학적 표상에 집착해 온 것도 결코 우연한 현상만은 아니었다.

이제 ‘만주문학’연구가 질과 양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온 마당에 돌이켜 보면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거듭 지적되어 온 일이기도 하지만, 연구가 시와 소설에 치우쳐 다른 여러 형태의 문학양식들에 대한 주의가 소홀했다던가, 연구의 관점을 지나치게 민족주의의 굴레 속에 가두어 뒀으므로 중층적인 만주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미흡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글의 동기라 할 수 있는 바, 지금까지의 만주문학 연구가 주로 일제강점기 안에서만 맴돈 나머지 좀 더 앞선 시기의 애국계몽문학<sup>2)</sup>과 해방 뒤 남·북한 문학의 만주표상에 대한 천착이 미흡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신채호는 만주문제에 대해 사

---

2) 애국계몽운동의 한 방편으로 생산된 문학을 가리키고 있지만 ‘애국계몽운동’이란 용어 자체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 용어는 ‘보호조약’ 이후 “사립학교를 창설하고 학회를 조직하고 종교단체를 창립하여 신학문을 교수하고 정치사상을 선전하고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전 민족을 일단의 대 세력으로 하여서 완전한 독립을 전취하고자 하였던 운동”으로 정의한 손진태의 『국사대요』(1949)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개념의 한정성을 문제삼아 ‘자강운동’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는 다만 일반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있는 용어와 그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박찬승, 「‘애국계몽운동’ 잘못 알고 있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참조.

실상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는 만주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만주의 현실을 원체힘으로 경험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국계몽문학은 그동안 근대문학의 만주 모티프 논의에서 대체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그동안 역사학이나 정치학 분야에서 더 많이 조명받아 왔을 만큼 문학보다는 오히려 역사가나 정치운동가로서의 면모가 한결 뚜렷했다는 점이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그가 문학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과도한 정치의식을 육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문면에 노출시킴으로서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는 일 따위에는 처음부터 그다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계몽문학은 이미 문학사 범주 안에서 분명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대문학의 만주 표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애국계몽문학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 2. 지리의 발견과 영토의식의 자각

우리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아무리 내재적 요인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서구문물의 유입과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각성을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sup>3)</sup> 19세기 들어 활발해진 서구 열강들과의 접촉은 두 가지 면에서 당대인들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지리의 발견이고, 다른 하나는 영토의식의 자각이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이양인(異樣人)들과의 접촉은 일차적

---

3) 사실상 두 요인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 요인일 수 없다. 내재적 요인은 외재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외재적 요인은 내재적 요인이 있어 추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적 변혁이란 이에 대한 민중들의 잠재적인 열망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서구 문물의 충격 없이 그것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으로 당대인들의 공간의식을 크게 확대시켰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피부색과 얼굴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고체계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 발견은 놀라운 것이었다.<sup>4)</sup> 18세기 이전 서양사람들의 ‘세계’가 지중해연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듯이, 근대 계몽기 이전 지식인들의 ‘세계’는 동북아 권역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개방 이후 밀려든 서양문물과의 교섭을 통해 얻게 된 지리학 정보는 당대 지식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자부심이기도 했다. 물론 이전에도 지도나 지리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402년 권근·이희 등에 의해 제작된 「혼인강리역대국도」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수준 높은 세계지도였다. 노사신 등에 의해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이 나온 것은 조선 중기 성종 때의 일이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일찌감치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실학사상의 영향이 컸다. 영조시대에 나온 이중환의 『택리지』, 1875년 최한기가 펴 낸 세계지리지인 『지구전요(地球典要)』, 1861년에 나온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직 근대적 성격의 국가나 영토개념에 결합된 것은 아니었다. 지리학이 근대적 개념의 국가나 영토 인식의 토대 위에 적극적으로 표상된 것은 1895년에 나온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처음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이 책은 이 시기 정치개혁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되고 애국계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후로부터 각종 지리학 관련 저술들이 활발하게 간행되고<sup>5)</sup>, 많은 지

4) 고대국가 시대에 이미 서역이나 인도 등과의 교섭이 있었으나 정보의 규모나 파급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국민·영토·주권 등과 결합된 근대적 국가 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근대 계몽기의 대외 교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5) 헐버트의 『스민필지』(1889), 학부의 『지구약사』(1896), 『만국지지』(1907), 『중등만국지지』(주율영창 저, 주영환·노재연 역, 1902), 유길준의 『서유견문』(일본 교운사, 1895), 밀러 부인의 『초학디지』(1905), 민대식의 『신찬지문학(新撰地文學)』(휘문관, 1907), 진희실의 『신찬외국지지』(일신사, 1907), 황윤덕 역 『만국지리』(보성관, 1907), 국민교육회 편 『초등지리교과서』(국민교육회, 1907), 김홍경의 『신정중등만국신지지』(김상만서포, 1907), 송헌석의 『신정중등만국지리』(1910) 등은 세계지리학 서적들이었으며, 학부의 『조선지지』(1895), 현재가 편역한 『대한지지』(1899), 저자미상의 『아한강역고(我韓疆域攷)』 정약용의 『대한강역고』(박문사, 1905),

식인들이 앞다퉀 지리학 관련 문자행위에 열심을 보이기도 했다.<sup>6)</sup>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민족계몽을 위한 수단으로 지리학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sup>7)</sup> 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서는 본국지리와 외국지리가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리학 지식은 바로 근대 지식인의 필수요건이었던 셈이다.

지리의 발견은 자연스럽게 영토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영토의식을 일깨우게 된 데에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외세의 만행과 유린이 촉매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된 것이 1905년의 일이었고, 토지수탈을 주도할 ‘동척’이 설립된 것은 1908년의 일이었다. 국권이 허약해지고 망실될 위기에까지 내몰린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나 땅이 땅일 수 없음을

- 
- 장지연의 『대한신지지』(?), 김건중이 역술한 『신편대한지지』(보성관, 1907) 등은 국토지리서였다. 홍순애, 『한국근대문학과 알레고리』, 제이앤씨, 2009., 284쪽.
- 6) 이 시기 각 종 매체에 발표된 지리학 관련 기사들의 대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남순희(南舜熙), 「지리인사지대관(地理人事之大關)」,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7. 2. 28. 「지리초광(地理初光)」,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7. 7. 31. 이 기, 「대한지도설」, 『대한자강회월보』, 1906. 9. 31. 장지연, 「지리」, 『대한자강회월보』 3-5, 1906. 9. 31-11. 31. 유 근 초역(抄譯), 「대한지지 산경문헌비고」, 『대한자강회월보』 11, 1907. 5. 25. 주시경, 「지지문답(地誌問答)」, 『가명잡지』 3, 1906. 8. 25. 원영의, 「지지문답」, 『소년한반도』 1-6, 1906. 11. 1-1907. 4. 1. 박정동, 「지문학」, 『소년한반도』 1-6, 1906. 11. 1-1907. 4. 1. 한명수, 「외국지리」, 『태극학보』, 1907. 1. 24. 학불염생(學不厭生) 역, 「지구지 과거 급 미래」, 『대한유학생회회보』 1, 1907. 3. 3. 최 생, 「지리학 잡기」, 『대한유학생회회보』 2, 1907. 4. 7. 원유객, 「지리학」, 『대동학회월보』 8, 1908. 9. 25. 현 은, 「대한지지(大韓地誌)」, 『대한협회회보』 1-12, 1908. 4. 25-1909. 3.25. 김하정, 「대한 신지리학」, 『기호홍학회월보』 3, 1908. 10. 25. 「봉길이(鳳吉伊)지리공부」, 『소년』 1, 1908. 11. 1. 「해상대한사(海上大韓史)」, 『소년』 1, 1908. 11. 1. 「쾌소년세계유람시보」, 『소년』 1, 1908. 11. 1. 「초등대한지리본고」, 『소년』 16, 1910. 4. 15.
- 7) 남상준, 「개화기 근대교육제도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논집』 19, 1988, 10; 소영현, 「근대적 변혁론의 원천: ‘지리-문화’론」,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참조.

경험하게 된 것이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땅에 의지해 살지만, 그 땅은 주권에 의해 표상되는 국가의 보호 안에 있을 때에만 ‘땅’일 수 있다는 인식을 얻게 된 것이다. 땅이 국가 주권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영토가 되며, 이 영토 없이는 결국 개인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견은 자연스러웠다.

國家라 하는것은 一定한 土地를 有하고 또 權力으로써 統一한 人民의 團體니라 此 定議를 分析하면 國家에 三要素가 有하는데 第一은 土地니 幾千萬人이 公同하여 團體를 結合하더라도 一定한 領土가 無하면 國家라 稱할수 無한지라. -중략- 第二는 權力이니 一定한 土地가 有하고 數多한 民族이 有하더라도 此를 統治하는 主權者가 無하면 國家가 아니니라. 故로 文明諸國에서는 治者와 被治者의 區分이 明瞭하여 人民이 其 主權者에게 對하여 絶對的으로 服從하느니라. 第三은 人民의 團體니 此 社會上에 無數한 團體가 存在하였으나 國家는 單純한 團體가 아니요 一定한 土地와 權力으로 組成한 團體니라. 以上 三要素로 成立한 國家가 吾人과 如何한 關係가 有하뇨.<sup>8)</sup>

개인과 국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운명공동체’라는 합의가 전제된 이 글의 주지는 결국 국권상실의 위기상황에서 개인은 누구나 방관자일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애국계몽운동가 공통의 인식이기도 했다.

### 3. 호명된 영웅, 재생된 기억

지리의 발견과 영토의식이라는 새로운 지평 위에서 본 국제관계는 크로포트킨 식의 상호부조와 협력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약한 자의 고기가 강한 자의 밥이 되는 처절한 경쟁의 관계였다. 이같은 인식에는 ‘사회진화론’의 영향도 컸다. 사회진화론은 당시 국내 지성사에 무엇

8) 최석하, 「국가론」, 『태극학보』, 1906. 8. 24, 9쪽.

보다도 폭발적인 담론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국내 정세가 외세 앞에 무기력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정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 있게 전파되었다. 계몽기 지식인들에게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양계초(梁啓超)였다.<sup>9)</sup> 신채호·박은식·장지연 등이 예외가 아니었지만, 특히 신채호의 경우엔 사유와 인식의 내용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를 설명하는 방법이나 용어까지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을 만큼 그 영향이 절대적이었다.<sup>10)</sup> 이들이 소설양식에 주목하게 된 동기 자체도 양계초의 영향 때문이었다. 양계초와 이들 애국계몽운동가들의 핵심적인 사상은 생존경쟁의 구도 속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구축해 낸 찰스 다윈과 이를 사회학적으로 ‘진화’시킨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자연 생물체뿐만 아니라 인간세계까지도 철저하게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진화론적 세계인식은 바로 이 경쟁에서 뒤 밀려 망국의 처지에 놓인 만청기 변법자강운동가들이나 국권상실의 위기에 놓인 애국계몽운동기 조선 지식인들에게 천둥같은 충격이었다. 이들이 서둘러 국가론을 새롭게 세우고 대중교화에 투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같은 절박감에서였다. 이러한 상황과 절박감 속에서 호명된 것이 바로 만주였다. 우리가 과거 만주의 주인이었다는 인식, 그러나 지금은 그 만주가 약육강식의 제물이 되어 역사적 기억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으로서, 이제 또 다시 반도 안에 갇힌 남은 영토마저 잃게 된 뼈아픈 현실에 대한 자각이 다시금 만주를 불러내게 한 것이다. 그 결과 만주는 계몽기 담론 속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계몽기 담론 속에 만주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호명해 낸 사람은 신채호였다. 그가 망국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망명길에 오른 것은 ‘합방’ 직전인 1910년 4월이었다. 그는 망명 전, 왕성한 저술활동을 보였다. 그

9) 엽건곤, 「양계초와 구한말문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9; 우림걸, 『한국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참조.

10) 표언복, 「단재의 문학관 형성에 미친 양계초의 영향」, 『목원어문학』 8, 1989, 10쪽.



의 대표적인 논설이나 소설들 가운데 대부분은 망명 전에 발표된 것들이다. 국권을 ‘강도’<sup>11)</sup>당할 위기에서 그가 몹시 초조해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가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있던 1907년 「이태리건국삼걸전」을 역술해 낸 것은 그의 문학적 전개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다. 양계초 작으로 원제가 「의태리건국삼걸전(意大利建國三傑傳)」인 이 작품은 이태리 건국영웅인 마치니(Mazzini)·카부르(Cavour)·가리발디(Garibaldi)의 행적을 그린 것이다. 신채호는 이를 역술해 낸 후 곧바로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전」, 「을지문덕」, 「동국거걸 최도통전」등을 잇달아 발표한다.<sup>12)</sup> 이순신, 을지문덕, 최도통을 한국의 ‘삼걸’로 내세우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삼걸은 이후 그의 글 곳곳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명된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호명되고, 현실과 역사가 만나는 환상 속에서도 호명된다. 신채호 소설에서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프로타고니스트였던 것이다. 그러고보면 소설을 백안시하던 전통 유학의 분위기 안에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워 온 신채호가 소설을 최고의 문학양식(文學之最上乘)으로 규정한 양계초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스스로 소설 창작에까지 나선 동기가 자명해진다. 넘치는 의도를 충분히 형상해 낼 만한 미학적 안목과 기교가 미숙한 대로 그에겐 오직 국권수호를 위한 민중교화만이 절대명제였다. 그가 서사 속에 호명해 낸 인물들은 모두 전쟁영웅들이다. 그것은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으로 규정한<sup>13)</sup>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런 일이다. 전쟁이

11)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일제를 ‘강도’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강도정치’로 비유했다.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편, 『단재신채호전집』 하(개정판), 형설출판사, 1987, 38쪽.

12) 이들 작품들은 국한문본과 국문본이 따로 있고 별도의 실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 서지정보가 다소 혼란스럽다.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전」의 경우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에는 1908. 5. 2-8. 18, 국문판에는 1908. 6. 11-10. 24까지 연재되었다. 광학서포에서 간행된 『을지문덕』은 국한문본은 1908년 5월 30일, 국문본은 같은 해 7월 5일 간행되었다. 「동국거걸 최도통전」은 『대한매일신보』에 1909. 12. 5-1910. 5. 27까지 연재되었다.

13) 『단재신채호전집』 상, 형설출판사, 1987, 31쪽.

란 다름아닌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일이자 그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일이다. 이순신이 영토를 지켜낸 일에 탁월한 공을 세운 영웅이었다면, 을지문덕과 최도통은 영토를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일본과 딴덕흔 이중에 족히 우리나라 민족의 명예를 딴표할 만한 거룩흔 인물”<sup>14)</sup>로 표상되었고, 을지문덕은 수백만에 불과한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토디와 이 인민을 잘 써서 압록강 밧그로 만여 리 되는 싸을 취하야 그 언어도 곳지 아니하고 그 풍속도 다른 몇백만 다른 민족을 어거”<sup>15)</sup>한 영웅으로 재현되었다. 최도통도 마찬가지이다. “鴨綠의 長江을 越하여” “自家의 舊物을 光復”<sup>16)</sup>하고자 한 영웅인 것이다. 이들을 다시 불러내어 창작전기 속에 재현해 낸 의도는 다음의 인용에 밝게 드러나 있다.

대덕 슈군의 데일 유명흔 사람이 잇고 털갑션을 창조흔 나라으로 오늘날에 니르러 더 희군의 7장 장흔 나라와 비교하기는 고사하고, 필경 나라이라는 명식쫓츠 업서질 디경에 섹젇스니...중략...이에 리순신전을 지어 고통에 섹진 우리 국민에게 전포하노니, 무릇 우리 선남신너는 이것을 모범홀지어다. 하느님씩서 이십 세기 태평양에 둘재 리순신을 기다리느니라.<sup>17)</sup>

그러나 지금은 일폭 금슈강산이 파쇄가 되어 단군이후에 스천년을 전리하던 중심기지지 지 늬에게 스양하야 우리집 형제들은 발을 드릴 곳이 업스니 어느 겨를에 압록강 서편을 싱각이나 하여 보리오 읍흐다 이십세기 새 대한에 을지문덕의 탄싱이 엇지 그리 더디뇨<sup>18)</sup>

저 만주 전 지역과 요동의 일부는 3천 년동안 우리나라에 대대로

14) 『리순신전』, 『단재신채호전집』 별집, 형설출판사, 1987, 427쪽.

15) 『을지문덕전』, 광학서포, 1908, 42쪽.

16) 「만주문제에 취하여 재론함」, 『대한매일신보』, 1910. 1. 21.

17) 『리순신전』, 앞의 책, 491-92쪽.

18) 『을지문덕전』, 앞의 책, 42쪽.

내려오던 강토로서 발해가 멸망한 뒤에 다른 나라의 것인데...중략...  
최도통이 이에 원나라 정부의 나약함과 중국 전체에 걸친 혼란스런  
상황을 말하여 반드시 이길 방법을 증명하고 또“옛 땅을 되찾는데  
적의 크고 작음과 강하고 약함을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sup>19)</sup>

표면에 고토 회복을 위한 영웅대망론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신채호 작품들에서는 만주가 아주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호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 만주는 어디까지나 역사 속의 만주이며, 기억 속의 만주일 뿐이다. 망국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처지에 만주 고토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신채호는 만주를 가운데 두고 세계 열강들이 각축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망명 직전 『대한 매일신보』에 발표한 일련의 만주 담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將來 何許 大戰爭이 出할지도 難知”한 그 각축장에 한국은 없다. 그는 비록 ‘선독립론과 국수보전론’을 골자로 하는 강경한 현실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는 하더라도<sup>20)</sup> 세계 열강들과 한국 사이에 크게 벌어져 있는 물리력의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안도 역시 뒷날을 도모하는 길밖에 없었고 거기에 영웅대망론은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그의 반복적인 만주 호명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정작 그가 의도한 것은 힘이 지배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맹목인 채 국가의식이나 역사의식이 거세된 민중들을 일깨우는 데 있었고, 이를 통해 당장 국권을 유린하고 있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었다. 우리가 과거 만주 지배의 주체였다는 기억의 재생은 민중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현실타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일이라 여겨졌을 것이다. 이 점에서 신채호의 역사 전기

19) 『최도통전』, 앞의 책, 196쪽.

20) 애국계몽운동의 계열별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는 박찬승, 「한말자강운동론의 각 계열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68, 1990, 81-140쪽 참조.

소설들은 의도된 알레고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신채호가 굳이 전쟁영웅들을 역사 속에서 호명해 낸 것은 물론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의 탐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망국’이라는 당대 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망 부재의 상황 아래서 소설은 흔히 역사를 통해 현실 타개의 길을 찾는다. 인식의 폭이나 깊이와 관계 없이 역사적 사실들은 독자들이 기억 속에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며, 따라서 쉽게 불러내어 일체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만주 인식은 비록 견고한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분히 낭만적이며 추상적인 수준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미 근대화된 과학적 세계관과 물리력으로 무장된 열강들의 침탈을 막아내기에 그것은 한낱 감상적 위안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현실의 만주, 거울 앞에 선 자아

망명 직전 신채호는 소설형식이 아닌 논설을 통해 다시 만주를 호명해 내고 있다. 「한국과 만주」<sup>21)</sup>, 「만주와 일본」<sup>22)</sup>, 「만주문제에 취하여 재론함」<sup>23)</sup>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만주관련 논설들에서는 ‘만주’가 앞서 논의한 역사전기소설들에서보다 한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들 논설들은 당시 신채호의 만주 인식의 전모를 확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과 만주」에서 그는 만주가 “한국과 일의대수(一衣帶水)를 격하여 한국 영육화복의 기관을 작하는 일지”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1) 『대한매일신보』, 1908. 7. 25.

22) 『대한매일신보』, 1910. 1. 12.

23) 『대한매일신보』, 1910. 1. 19-22.

韓國과 滿洲의 關係密切이 果然 如何한가. 韓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民族이 强性하며, 他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民族이 劣敗하고 又是 他民族中에도 北方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國이 北方民族의 勢力圈內에 入하며, 東方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國이 東方民族勢力圈內에 入하니, 嗚呼라. 此는 四千年 鐵案不易의 定例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아는 자가 적고, 만주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십수 년을 두고 다투는 중에도 한국은 “수수낙시(袖手樂視)”만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만주와 일본」에서는 만주를 손에 넣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의 의도가 열강들의 견제로 인해 여의치 못할 것임을 말하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글에서 단재는 만주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와 이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각축양상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국제간의 역학관계나 정세의 변화에 대한 순발력 있는 탐구정신을 짐작케 해 준다.

4회에 걸쳐 연재한 「만주문제에 취하여 재론함」은 사실상 제목이 암시 하듯, 앞의 두 글에서 제기한 논의들을 심화시키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시 한국과 만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상세히 고찰한 뒤, 발해 멸망 이후 잃고 만 만주를 논하는 일은 “망야의 영을 수함”과 같이라며 자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재는 만주를 ‘동양의 발칸반도’라 비유하여 장차 정세가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만주문제를 “망주야갈력연구(罔晝夜竭力研究)”할 “유지남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단재가 이글에서 만주 유이민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글에서 신채호는 벌써 만주 이주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여 일제의 탄압이나 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만주는 장차 한인의 “주집지(注集地)”가 될 것이라고 전망, 이곳에 이주하는 한인들이 지

녀야 할 마음가짐과 책무를 권고하고 있다.

且 韓國內 悲痛의 切迫함을 隨하여 外國으로 移住하는 者-日 增하나, 然이나 歐美는 韓人의 航路가 杜하여 飛渡하기 甚難되 滿洲는 連陸咫尺의 地라, 비록 統監府의 施行法이 苛하며 淸國의 韓人의 移植함을 制限하나 此 男負女戴하고 日日逃出하는 韓人을 어찌 如意히 遏絶하리오. 然則 滿洲가 將來 韓族의 注集地 됨은 可히 豫測할 바라. 雖然이나 吾儕는 此 移住者에게 對하여 特別히 三大勸誡 與하노니

(一)曰, 思想을 高尚케 함이라. 此에 移住하는 者-往往 全軀保家의 計를 抱할 뿐이오, 愛國 . 愛同胞의 義氣를 有한 者는 小數에 居하니, 嗚呼라. 國이 亡하면 何處에 往하던지 身家도 隨亡하리니, 文明의 機關되는 學校 . 新聞等を 設하여 愛國事業으로 相提撕함이 可하며,

(二)曰 國粹의 保全이라. 蓋 前朝以來로 恒常 凶荒喪亂을 際함에 江을 越하며 山을 踰야 滿洲에 移居한 者-許多하지마는 此地에 徒히 女眞의 跳梁함을 見하며 契丹의 充斥함을 見할뿐이오, 一二個 韓民族을 得見키 難함은 何故오. 是는 無他라, 移住하는 韓人이 國粹를 保치 못하여 宗教上 . 風俗上 . 言語上 各方面을 從하여 女眞 . 契丹等異族으로 化去한 故니, 어찌 可惜할 必 아니리오. 今日 移住의 韓人은 特別히 國粹 保存에 用力할지며,

(三)曰 政治能力의 養成이라. 凡 非澳各洲 白人의 植民地가 皆 其國政府에서 彼를 擁護하여 如此繁盛함이 아니라, 只是 彼等の 政治能力이 强하여 團結에 善하며, 自由에 勇하여 他人의 壓迫을 不受하고, 其足跡의 至하는 바이면 居然 一新國의 形을 造成함이요, 紅 . 黑種人은 政治能力이 弱함으로 曠土衆民도 他에 讓하고 到處에 고통을 注하니, 此에 移住하는 韓人은 散渙한 志意를 合하여 政治의 天性을 發揮하여 他日 母國에 貢獻하고 徒히 林居 藪處하여 禽獸의 生活을 做치 말지어라.<sup>24)</sup>

24) 「논설」, 『대한매일신보』, 1910. 1. 22, 1쪽.

인용한 내용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만주 유이민 현실에 대한 단재의 통찰력이 매우 예리하다는 점이다. 이주 초기에 해당하는 1910년의 시점에서 벌써 만주가 한인의 “주집지”가 될 것임을 정확히 예측해 내고 있는 점도 그렇고, 만주 유이민 사회의 취약점을 짚어 내고 있는 점 또한 그렇다. 이는 물론 유이민 사회를 직접 보고 체험한 데서 연유한 일이겠으나 단재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또한 단재의 이같은 유이민 인식은 단순한 도생이민보다 정치적 망명이 중심을 이루던 당시의 이주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생계의 방편보다는 시국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이같은 만주담론을 통해 단재가 아직 만주를 회복 가능한 고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만주풍운의 무대여 유지남아의 출현을 축하는도다”에서 보듯, 특유의 영웅대담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망막 안에서는 만주 유이민 사회도 오직 ‘애국’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 있다. 국가관념이나 민족의식 이전에 삶 자체가 더 절실할 수 있는 유이민 현실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유이민들이 나라와 동포 사랑보다 ‘전구보가(全軀保家)’의 뜻이나 세울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데에서 보듯이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편향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요구한 ‘고상한 사상’ 속에는 국가와 민족만 있을 뿐 그 인적·물적 토대라 할 만한 생존 및 생계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만주는 러일전쟁 이후 실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 들고 있었다. 각축하던 전쟁에서 이긴 일제가 그 여세를 몰아 한결 적극적인 만주 경략에 나선 때문이다. 만선철도 부설이 그 단초였다.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열강들이 적극 견제하고 나서면서 단재의 표현대로 ‘대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런 정세하에서 역사 속의 만주를 기억하고 있는 단재로선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런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담론 속에 호명해 내긴 하였으나 막상 ‘유지남아의 출현’

을 고대하며 후일이나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괴로워하는 착잡한 심사가 행간에 녹아 있다. 역사 속 경험을 호명해 바라본 만주는 사뭇 낭만적인 추억의 공간이었지만, 과학적인 언론인의 프리즘에 투사된 현실은 그만큼 절망적이었던 것이다. 만주는 열강들이 각축하는 현실을 ‘수수낙시’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자아를 비춰보게 하는 거울이었던 셈이다.

## 5. 꿈과 욕망의 재현

망명 이후에도 단재는 지속적으로 집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망명 이후의 창작 중에 「꿈하늘」과 「용과 용의 대격전」이 대표적이라 할 만하다. 망명 전의 소설과 후의 소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앞의 것이 ‘역사·전기소설’로 규정되는 대신, 뒤의 것은 흔히 ‘환상소설’로 불리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많은 부분을 역사 서술에 기대고 있는 전자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보다 많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데 비해, 후자에서는 한결 더 육화되어 있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망명 이전 단재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집필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그가 발표 매체에 몸담고 있는 언론인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때 이미 모든 문자 행위가 일제의 감시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망명 이후 그는 이 두 굴레로부터 모두 벗어날 수 있었다. 한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그는 새로운 표현양식을 실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찾아 낸 환상의 세계는 작가에게 출구 없는 억압적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몽매한 민중들을 불러내어 꾸짖고 강도 일본을 정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그의 환상은 단순한 추상적 꿈과 욕망의 투사가 아니라 개혁되어야 할 현실적 꿈과 욕망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알레고리이다. 소설에서는 역사적 영웅들이 환상을 통해 다시 현실 가운데 호명 되어 있으며, 그들을 통해 출구 없는 현실의 타개책이 제시되고 능히 누릴 수 있는 이상세계가



제시되기도 한다.

환상성과 알레고리가 복합된 독특한 양식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꿈하늘」<sup>25)</sup>에서도 만주는 거둬 서사현실 속에 호명되고 있다. 그러나 앞 시기 역사·전기류소설들과는 아주 다르게 우회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면서도 만주가 우리의 고토라는 인식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옛적에 檀君神祖께서 모든 敵國을 깨치고 그 싸를 난워서 서울을 세울새 첫서울은 太白山東南朝鮮사에 두고 갈온바‘扶蘇’요 다음 서울은 太白山西편 滿洲사에 두니 갈온바‘百牙罔’이오 셋재 서울은 太白山東北滿洲 및 沿海洲사에 두니 갈온바‘五德’이라. 이 세 서울에 한아만 일흐면 後世子孫이 衰弱하리라 하사 그 豫言을 적어 神志에게 주신바어늘 오날에 그 서울들이 어대인지 아는이가 업슬썬더러 이 글까지 니젓도다.<sup>26)</sup>

檀君이 처음 나라를 세우실새 地理는 南北은 鳥嶺부터 黑龍江에 일이고 東西는 內蒙古의 直隸等地부터 동해에 일으며...<sup>27)</sup>

신채호 서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호명된 인물은 을지문덕과 단군이다. 모두 지리멸렬해진 국체를 분명히 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sup>28)</sup> 단군의 경우 박은식에게서 보다 적극적

25) 이 작품은 아직 정확한 원본 확정작업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집필시기는 다소 혼선이 있는 중에도 ‘1916년설’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학사상』 1972년 12월호 수록본, 『단재신채호전집』 수록본, 김병민의 『신채호문학유고선집』(연변대출판부, 1994) 수록본 등의 내용이 다 달라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본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용과 용의 대격전』 수록본 자체가 “윤색·삭제·재편집”을 거친 것이어서 더욱 문제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김병민의 『선집』 수록본을 대상으로 삼았다. 원본관련 논의는 앞의 『선집』에 수록된 김병민 「신채호의 문학유고에 대한 자료적 고찰」,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서울, 1997, 303-305, 318-320쪽 참조.

26)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선집』, 연변대출판부, 1994, 28쪽.

27) 같은 책, 41쪽.

으로 호명되고 있지만 단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의 인용에서 보이듯 단군은 신채호에게서 이미 ‘신조(神祖)’로 호명되고 있다. 건국시조인 ‘국조(國祖)’로서의 지위를 넘어 신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그 영토는 지금의 한반도는 물론 남·북 만주와 연해주 및 내몽고 일대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만큼 건국 당시의 영토가 광활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다.

이 꽃이 무삼 꽃이나  
 피엿슬음한 머리(大白頭山)의 얼이오  
 불고스음 고흔 아참(朝鮮)이 빗히로다  
 이 꽃을 붓도두랴면  
 비도 말고 바람도 말고  
 피물만 썩래주면 그 꽃이 잘 잘아리  
 여날 우리 全盛할쎬에  
 이 꽃해 구경가니 꽃송이가 크기도 하더라  
 한 엽흔 黃海渤海를 건너 大陸을 덮고  
 또 한 엽흔 滿洲를 지나 우수리에 늘어져터니  
 어이해 오날날은  
 꽃이 이다지 여웻느냐  
 이 몸도 일즉 當年薩水平壤 모든 썩음에  
 팔쪽으로 비쌍삼고 가삼이 방패되야  
 ...하락...<sup>29)</sup>

주인공 한놈이 님나라를 찾아가는 길에 만난 무궁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 여기서의 꽃은 무궁화, 곧 한국<sup>30)</sup>의 영토를 표상한다. 전성시에

28) 홍순애, 『한국근대문학과 알레고리』, 제이앤씨, 2009, 280-82쪽 참조.

29) 김병민, 앞의 책, 22쪽.

30) 「꿈하늘」에서 ‘조선(朝鮮)’이라는 용어가 자주 보인다. 그러나 망명 이전의 글에 서는 좀체로 보이지 않고 ‘한국(韓國)’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 원전 전수와 정에서 바뀐 건 아닌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꽃송이가 커서 황해 발해를 건너 대륙을 덮고 만주를 지나 우수리에 늘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우수리는 지금의 러시아령 연해주의 중심지이다. 우의적으로 표상된 영토의 규모가 앞의 두 인용과 일치한다. 만주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가 우리의 고토였음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조급증이 만주를 반복적으로 구성해 내고 있다. 그러나 그 만주는 현실에 없는 기억 속의 실체이다. 그 넓던 고토가 옛 영화로만 기억될 뿐인 것이다. ‘피물’만 뿌려 주면 잘 자라는 무궁화는 지금 많이 여위어 있다. 싸움에 진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싸움의 역사이다. 그 싸움 중에는 나라를 위한 싸움이 으뜸이다. 싸움에 져 고토를 상실한 터에 지금 나라가 또 다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변고에 직면해 있으니 모두 이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작품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변고란 물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식민지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만주는 피를 부르는 한 기제로 호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만주는 앞으로 복원해 내야 할 꿈과 욕망의 표상이다. 단군 신조 이래 만주가 우리의 고토였으나 싸움에 져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피 흘리는 싸움 없이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살아 남을 수 없음을 강조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피는 “팔뚝으로 비쌍삼고 가슴이 방패되”어 싸우고자 하는 애국심을 은유한다. 국권을 회복하고 옛 영화를 복원해 내는 일은 오로지 피 흘리기를 주저치 않는 애국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록 은유적이고 환상적인 기법에 의존함으로써 우회적이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작품의 톤은 훨씬 강경하다. 그러나 그가 주제화하고 있는 애국·애족·투쟁 등의 개념이 지극히 추상화 되어 있을 뿐 현실적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작품이 비록 환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 6. 맺는 말

단재 신채호가 불러 낸 만주 담론은 대략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됨을

살펴 보았다. 첫째 단계는 역사·전기소설의 단계이고, 둘째는 논설의 단계이며, 마지막 셋째 단계가 망명후 집필한 환상적 알레고리의 단계이다.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단재의 사상 형성과정에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양계초였다. 따라서 그의 문학적 원천이 양계초였다는 사실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가 본격적인 저술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성과물이 바로 양계초의 「이태리건국삼걸전」을 역술해 낸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된다. 곧바로 집필해 낸 세 편의 역사전기물은 「이태리건국삼걸전」의 모방이다. 단재는 이들 세 편의 역사전기물들에서 전쟁영웅들을 재현해 내고 있다. 다시 일본과의 일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불멸의 전공을 세운 전쟁영웅들을 역사로부터 불러내어, 전설이 된 그들의 승리를 기억하고 재생해 내는 일은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일이다. 고토인 만주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사담론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일제의 침략 아래 망국의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광활한 만주를 무대 삼아 민족의 기개를 마음껏 펼치던 기억을 재생해 내는 일은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현실극복의지를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은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인으로서의 안목으로 바라본 만주의 현실은 냉혹했다. 세계의 열강들이 막강한 물리력을 앞세워 각축하는 현장엔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다. ‘동양의 발칸반도’로 비유된 고토 만주는 한국의 운명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그런데도 그 만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논객 신채호의 심사는 착잡했다. 이같은 심회는 거듭 만주문제를 ‘갈력연구’할 ‘유지남아’의 출현이나 고대하고 있는 문면 속에서 쉽게 읽힌다. 역사전기소설의 만주인식이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앞세운 낭만성을 특징으로 한 것이라면, 망명 직전의 만주 담론들은 전망부재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배경으로 한 객관적 사실성이 특징이다. 만주 유이민 현실에 대한 예각적 인식이 돋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주를 회복 가능한 고토로 보는 인식은 여전하지만 현실적 정황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한결 신중하다.

환상적 알레고리 형식을 실험한 「꿈하늘」에서도 만주는 여전히 서사

담론 속에 호명되고 있다. 만주가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고토로 재현되어 있는 점에서 망명 전의 글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회복의지가 한결 적극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 실현 방법이 다른 유형의 글쓰기 형식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민족내 역기능 현상들에 대한 강경한 투쟁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신채호는 여러 형식의 글쓰기 방법을 통해 만주를 가장 적극적으로 호명해 낸 작가라는 점이다. 국권상실기의 우리 근대문학에 있어서 만주는 국내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매체와 조직을 가진 ‘문단’이 형성돼 한글 창작활동이 왕성하던 우리의 문화영토이기도 했다. 그래도 신채호만큼 적극적으로 만주를 자신의 글쓰기 안에 불러들인 경우는 없다. 더구나, 그만큼, 만주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고토라는 영토의식을 내비치고 있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문학에서 고토의식은 배제된 채 다만 하나의 배경으로만 재현되어 있을 뿐이다. 주체가 배제된 ‘간도협약’에 의해 터무니없이 획정된 만주 일대의 영토가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있는 주권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채호의 역사의식은 더욱 돋보인다. 그러나 그의 만주인식이 고토의식에만 매몰되어 있어 민족의 현실적 생존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 한계라 할 것이다. 나아가 그가 제시하고 있는 고토 회복 의지나 그 방략이란 것도 구체적 실현성이 생략된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한매일신보』(영인본)

『한국개화기문학총서』(역사전기소설), 아세아문화사, 1979.

『한국개화기학술지총서』, 아세아문화사, 1976.

『용과 용의 대격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김병민, 『신채호문학 유고선집』, 연변대출판부, 1994.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편, 『단재 신채호와 민족사관』(개정판, 전4권), 형설출판사, 1987.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CD-ROM),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우림길, 『한국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이영신, 「단재 신채호의 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2.

홍순애, 『한국근대문학과 알레고리』, 제이앤씨, 2009.

〈ABSTRACT〉

## Consciousness of Manju and Its Transfiguration for Sin Chae Ho

An Bok Pyo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way how Manju was recognized at that time and how their perception had changed from works of Danjae Sin Chae Ho.

I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was the era of historical, biographic novels. The second was the era of editorials, and the third was fantastic allegory novels.

Manju was old lost territory of Korea for Sin Chae Ho. Thus, he believed that Manju is our territory that must be regained. The belief such as this was consistent through all his life. He emphasized his belief through various types of writing. His attitude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types of work slightly. In historical, biographical novels, he focused the belief that Manju was our territory before. In editorials, he tried to let people aware that Manju was a competitive target place among the great nations. He emphasized more active interest to Manju. Furthermore, in the era of fantastic allegory novels, he focused the necessity of aggressive struggle to restore Manju. More and more his intend to restore Manju was turning actively. Sin Chae Ho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intellectuals who thought that we should be aware and restore Manju through literature.

**Key words** : Sin Chae Ho, Manju, territory, historical, biographical novel,  
editorial, fantastic allegory novel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12.5 / 게재확정일 : 8.10
--------------------------------------------------